



통권34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4. 8. 13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02)763-2606 • 765-5282

신공안정국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1994년 8월 10일

기독교회관

주최: 민가협, 민변, 민주법연, 불교인권위,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연합인권위, 천주교인권위, 한교협인권위

6, 7월 신공안정국에 접어들면서 329명의 구속자와 대량 수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 30분 기독교회관에서는 인권단체의 주최로 「신공안정국 탄압 실태 보고대회」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신공안정국하 노동·학생운동 탄압, 공안정국 부추긴 언론의 왜곡 보도, 교권침해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썩은 세상 가운데 청수(淸水)가 되어

편집부

보 천동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온 버스가 우리를 내려놓고 저만치 더 높은 곳을 향해 갔다. 서울 600년 기념사업에 이런 마을버스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없어서는 안될 서울의 풍경이다. 더욱이 선생님들께서 외출하실 때마다 요긴하게 쓰일 것을 생각하니 새삼 고맙기도 하다. 길가 집으로 들어서니 뿔테 안경을 쓰고 샤프한 인상의 김중종 선생님께서 맞아주셨다. 선생님께서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집필에만 몰두하신다고 들었는데, 방에 들어서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따위의 역사책들이 보였다.

“요즘 책 만드는 일 잘 되십니까?”

아무래도 그게 선생님이 가장 반기실 인사말일 터였다. 마치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아기 이야기가 최선의 이야깃거리인 것처럼. 그러나 오늘은 책 이야기보다 선생님의 삶을 들어야 되니까 조심해야지. 한 번 그쪽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신들린 듯 그 말씀만 하신다는 경고를 받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그리 된 것인지 모르게 난 선생님의 학설을 경청하고 있었다. 더러 화제가 바뀌었다가도 결국은 다시 역사 이야기로 되돌아오곤 하였다.

“3사 9방에 있을 때였지. 15년동안 정신적인 공간을 매우기 위해 문학, 철학, 외국어를 공부했어. 주로 역사책을 많이 읽었는데 우리나라 국사는 뭔가 잘못돼 있다, 원전 자체를 못읽어 낸다는

문제를 잡아냈어. 그래 내 나름대로 작품을 써 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 해서 시작한 거지.”

1961년 투옥, 1976년 보안감호 조치, 1989년 출소.

처음의 15년이 끝났을 때 선생님은 이미 52세였다. 부모님이 70노인이니 고물장사라도 해서 봉양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밖에 한 번 나가지도 못한 채 곧바로 보안감호소로 끌려갔다. 베트남전과 비전향자라는 이유때문이었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국보위 운운하고 5·17 쿠데타가 났다기에 또 10년 각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했지.”

그러시면서 삼국사기를 보여주셨는데 뭐 이상한 것이 없냐고 물으셨다.

“글쎄요.” “책장을 한 번 쓰다듬어 봐.”

불빛에 비춰보니 여백마다 글씨자국이 가득했다. 종이와 연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생님의 연구 성과는 칫솔대를 뽕족하게 갈아서 만든 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명국가 중에 방향을 뜻하는 말을 갖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이 우리말인가? 한자말이지. 가장 기본적인 명사가 죄다 한자말 투성이야. 수천 년 고락과 생사를 같이 해온 우리 말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어. 무지 속에 살면서도 자기말을 캐고 밝히려는 운동

이 없고...

선생님의 이론은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고서를 판독하는 방법도 사뭇 다르다. 선생님께서는 사람, 강, 산, 땅, 나라, 관직의 이름과 같은 명사는 한자의 음을 빌어왔을 뿐이라고 하셨다. 향찰식 표기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한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상용한 음은 강제로 통용시킨 음과 다른데, 학자들은 이른바 표준어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고 하셨다.

“친구 하나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 놓은걸 보니까 머리의 단면이 잘라놓은 것처럼 한 눈에 들어와요. 나도 컴퓨터가 있다면 옛날부터 쓰인 음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꼭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서에 담긴 암호를 해독하는 로제타석은 중국 원음으로 읽어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읽어보니 소리가 달라졌고 그 소리를 지금도 남아있는 토박이 말로 풀어내니 영락없는 우리말이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朴赫居世는 중국원음이 푸어취쓰인데 弗距乃(부취네)로도 불리웠다. 그런데 그 뜻을 光明理世(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라고 다시 적어놓았다. 그 이유는 朴赫居世는 소리일 뿐 뜻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어서 그 뜻을 밝힐 필요성이 있었던 거다. 2000년전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 우리처럼 박혁거세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푸어취쓰는 부할젓, 부취네는 불천의 차용음이다. 두 소리는 곧 밝천으로 세상을 밝게 켜다(다스린다)는 뜻이라고 한다.

감옥의 춘삼월은 하루가 까마득하게 길었지만 ‘요놈의 문제를 어떻게 푸냐?’ 생각에 잠기다 보면 금세 해가 지고 날이 밝았다.

“시간이 길다 짧다 하는 건 그 사람이 정신을 어디다 두느냐에 달린 거야. 요즘 <옛말로 읽는 우리 고대사>, <잃어버렸던 시원사>, <고구려, 백

제, 신라의 역사>를 쓰는 중인데 시간이 모자라. 하루빨리 책이 나와야 할 텐데, 책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서점에 가면 우후죽순으로 신간이 쏟아져 나오지만, 개중엔 종이값이 아까운 것도 많다. 그런데 10년동안 그 황막한 곳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탈고한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선생님, 학문하는 즐거움이 남다르실텐데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남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쓰레기통에서 주워내서 구슬을 꿰어냈다고 할까? 이를 악물고 내 의지를 버리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나 남기고 갈 수 있다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값진 소득이지요. 이것만 완수하면 30년 징역도 보람있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이 세상 뜰 준비를 마치는 거지 죽음이란 게 별건가? 긴 잠에 빠지는 것일 뿐...”

스무살에는 나이 서른이 되면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곤 했다. 그건 어떤 두려움 섞인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서 인간의 물리적인 나이는 어느 정도 초월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순아홉에 열매 맺는 선생님의 학문세계를 보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 고비를 겪게 되는데 그전까지 겪지 못한 일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거든. 그럴 때는 침착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찾아내야 돼. 쉽게 풀릴 문제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 성의를 다 해야돼. 자기 생은 자기가 취하는 양분을 받아 키워가는 거야. 이것이 이 세대가 살아가는데 알맹이지. 세 번째로는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나는 역사를 공부해 보니 이 사회가 파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 세상의 자 막대기가 잘못돼 있어. 이 사회의 기초는 가정인데 개개인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

짐승은 수컷이 암컷을 학대하는 일이 절대 없어. 인간만이 그런 짓을 하지. 단순한 도덕을 떠나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어른은 아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란 살아있는 정신이거든. 그러니 고도로 준비된 도덕성만 있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우리 후원회 회원만이라도 이런 생활을 해서 썩은 세상 가운데도 청수가 되기를 바래 일제하에서 조선인민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썩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어느덧 밤 11시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수은주는 35도를 오르내릴 때였지만, 부채 바람으로 더위를 쫓으며 선생님은 다시 책상에 앉으셨다.

“저기 차 내려온다”

딱 맞춤하게 온 마을 버스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밤바람이 시원했다. 아마도 온갖 혼탁한 세상사를 훑어 내리는 선생님 말씀이 소나기 같았기 때문이리라.

김중종 선생님 연보

1926. 4. 2 경북 안동군 임하면 천전리에서 김시린님의 2남으로 태어남. 독립운동을 하다 평양 감옥에서 옥사하신 할아버지, 독학으로 국민학교 교사를 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가난한 가운데에도 학문에 뜻을 둘 수 있었음.

- 1941 국립 대구 사범학교 심상과(보통과) 입학
- 1946. 3. 1 졸업 대구 사대 문과 사회생활과 2년 중퇴
- 1948 남한 단독선거 반대 학생운동
- 1949 말 경주에서 체포당함
- 1950 6·25전쟁 당시 의용군 입대
- 1951 부상으로 치료중 제대 법률학교 입학
 ~ 1960 검찰생활
- 1961. 8 통일사업 위해 나오다 체포
 군형법 1심 사형, 2심 15년 선고
- 1976 보안감호소
- 1989. 10 출소

8월 산행

땀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년만의 무더위 속에 지친 마음과 몸을 자연 속에서 풀어 봅시다.

8월은 과천대공원의 동물원과 시원한 계곡을 찾아갑니다.

우르르 몰려오세요.

- 모일 곳 :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매표소
- 모이는 때 : 8월 21일(일) 10시 30분
- 가져올 것 : 회비 3,000원

도시락은 특별히 맛있게 해오실 분만 가져와요!

언론이여! 언제 제 길을 가려는가

편 집 부

최 근의 사회분위기는 북한의 IAEA탈퇴로 인한 북핵위기 고조와 전쟁위기감 조성, 철도와 지하철파업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남총련 학생들에 대한 대대적 구속과 여론재판,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논쟁', 그리고 박흥 서강대총장의 주사파 배후 발언으로 인한 운동권에 대한 매도 등 신공안정국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을만큼 극도로 위축되고 경직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와 학생의 정당한 주장을 힘으로 제압하고, 통일에 대한 순수한 논의마저 마녀사냥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비이성적 행위뒤에는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와 여론조작이 큰 힘으로 작용해준 것이 사실이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보수언론들은 각기 정도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보수성과 정권지향적 성격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철도와 지하철 파업시에 언론은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극도의 편견으로 무장한 채,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사의 남발과 의도적인 왜곡보도를 일삼았다. 전기협과 지하철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비현실적이고 배부른 주장으로 몰아부쳤으며, 오히려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치적인 음모로 왜곡하였다. 노동운동단체를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반면, 무리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주도하고 악화시킨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현장복귀자 늘리기 작전'에 적극동참하였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에 대한 애정어린 보도보다는 당장의 교통불편에 짜증이 난 시민의 얼굴을 확대보도하는데 열을 올렸다.

또한 언론은 남총련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열차

를 불법정차시킨 서부영화의 갱으로, 경찰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벌이는 후안무치한 폭력배로, 전경을 3층창문에서 떨어뜨리는 파괴지상주의자로 그려내는데 성공하였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의 상경을 막은 경찰의 불법과, 조용히 집회장으로 향하던 학생들을 토끼몰이식으로 홍대에 몰아부친 경찰의 강경진압, 전경들의 작위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따지지도 보도하지도 않은 채, 학생들의 일방적인 폭력만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북한주석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문이 필요하지 않냐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김주석 홈모론자로 각색, 비판받아야 했다. 그러나 증거도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박흥 총장은 용기있는 지식인으로 각색, 추앙받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로 좌경세력의 변호로 몰아부치면서, 발언내용의 비논리성에 대한 검증 자체를 차단하였다.

이같은 언론의 파행적 보도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언론통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보수언론의 극우주의자들 스스로 나서서 오히려 정부 정책마저 비판해나서며 신공안정국을 선도해나가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극단적인 흑백논리와 기득권 수호에 사로잡힌 보수언론은 이미 합리적 균형감각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수언론으로는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적극적인 언론감시에 나서야 한다. 민족민주통일의 가치에 충실한 언론으로 바로잡는 일,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절대적 과제로 남은 것이다.

종식아! 거목은 굵은 비를 많이 맞아야 한다

편 집 부

지 난 문익환목사님 장례기간중 일을 도우러 갔을 때, '어떤 민가협 어머니' 한분을 만나게 되었다. 몇번 뵈면 적이 있어서 낮은 익었지만 누구의 어머니인지 알 만큼 가깝지는 않았으므로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을 드린 게 전부였다. 떡과 차를 나르는 일만 두세시간 정도 하고 난뒤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게 되었다. 사람들과 예의 그 형식적인 인사를 뒤로 하고 나오려는데 '어떤 민가협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온다'는 표현이 어울릴성 싶게 따라나오셔서, 송구스러울만큼 진짜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거였다. 벌써 며칠째 하루종일 일하고 계신 어머니앞에서 두세시간 편안한 일을 도왔다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민망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진심에서 우러난 인사말과 친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어깨를 두드려주시는 따뜻함,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람 한명한명을 모두 성의껏 대하시는 모습에 너무도 살뜰하게 느껴졌다.

연약할 것 같은 체구에 엄하고 고집스러워보이면서도 마주치면 마냥 편안한 눈길을 주시는 분, 삶속에서 체화된 듯한 논리로 차근차근하고도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분, 어머니를 만나본 사람은 아마도 누구든지 나와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이 어머니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의 그 '어떤 민가협 어머니'는 바로 작년 민가협 회장이셨고, 제5기 전대협위원장 김종식(한양대 총학생회장)의

어머니인 안옥희 님(60)이시다.

어머니는 전주가 고향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6·25를 맞았고, 학교선생님을 몇년 하시다가 중매로 지리산 뱀사골 근처인 남원으로 시집을 가셨다. 김종식씨(넷째)를 비롯한 5남매를 낳고 시골에서 10년을 살면서 어머니는 내가 고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식 공부만은 제대로 시켜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4형제를 데리고 홀로 서울로 올라와서, 아버지께서 전주로 오실까지 7년동안 공부 뒷바라지를 하셨다. 부모님의 이런 특별한 교육열때문인지 고3인 막내를 제외한 4남매 모두 서울의 우수한 사립대학을 들어갔다. 유학도 보내고 대학원에 다니는 자식도 있어서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께서도 생활하기도 벅차셨겠다고 하자, 학비 걱정은 하지도 않을만큼 각자 알아서 잘 해주었다고 칭찬하신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뤄놓은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없지만, 자식들이 모두 잘 되어서 그것만이 기쁘다고 하시는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큰 부자같아 보였다.

김종식씨는 이처럼 풍요하지는 않지만 배움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가풍속에서 자랐다. 몸이 너무 약해서 국민학교 3학년때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중학교 2학년때는 전국체전에 나가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그러나 운동때문에 합숙을 시키면서 학교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아버님이 운동을 그만두게 하셨다고 한다. 이

처럼 공부에 집념을 보이신 아버님이시지만, 그저 자식의 출세만을 위해서 공부를 강조하신 것은 아니었다. 김종식씨가 5기 전대협 의장이 되기 전에 전주에 내려와서 아버님과 새벽2시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때 아버님은 학생운동이 옳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들이 의장이 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단지 “김종식이 떨어진 놈이다”, “김종식이 나쁜놈이다”라는 말은 절대로 당신 귀에 들려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항상 바른 길을 갈 것을 강조하셨다고 한다. 아버님의 이러한 신념과 아들에 대한 믿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어머니가 민가협 활동을 하시느라 집안일에 소홀해져도 한번도 불평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고 하신다. 어머니는 그러한 아버님의 외조(?)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이렇게 전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도 마음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아버님과 어머니의 믿음은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만치 견고하다. 어머니는 김종식씨가 한참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전북대 집회에 참가차 온 아들을 잠깐 만날 수 있었다. 이때 어머니는 “지금까지 전대협 의장은 항상 잡혀가더라. 그러니까 나도 너가 잡혀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오도 해두고 미리 준비도 해두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때 아들로부터 그저 민가협에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종식씨가 구속된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서울 민가협사무실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아들

과 함께 구속된 전대협 간부의 어머니들과 함께 안기부 앞 싸움을 시작하셨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 고가다리 밑에서 거센 비 맞으며 20여일간 살면서 그저 남은 힘만 있으면 아들 내놓아라 외친 날들, 전경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닭장차에 실어 경기도 외곽에 내려놓고 가버리면 다시 다리밑으로 오느라 헤매며 고생하신 어머니들. 비가 추적거리며 오던 어느날 세번째로 포천에 내려놓고 갔을 때는 정말 분이 터질 지경이었다고 한다. 간신히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타고 검문소앞까지 와서 다시 걸어서 의정부로 들어와 늦은 저녁을 먹은뒤 서울 안기부 앞에 다시 도착하니 새벽 2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의 일을 소설로 쓰라고 해도 사연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회상하신다. 어머니가 이처럼 고달픈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아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



▲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김종식 전 전대협 4기 의장

니라, 옳은 길을 가다가 갇힌 것이라는 것에 대한 뒤흔힘과 자랑스러움이었다.

그런데 요즈음 박홍 총장의 경거망동은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3번 이상 생각한뒤에 말하라고 배웠어요. 내 자식이 학생운동을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절대로 학생운동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박홍 총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는 아무런 증거도 논리도 없는 말만 되풀이했을뿐이었어요.”라며 답답해하신다. 91년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헛소리때문에 3년이 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강기훈씨를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가슴을 치시는 어머니의 한숨은 다른 누구의 주장보다 가슴에 와닿았다. 설혹 자기 제자들이 실수를 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껴안고 바로 잡아주려는 노력을 먼저 보였어야 할 스승이며 목회자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매도할 수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김두희 법무장관은 주사파와 학생들은 반드시 가석방이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말에 코웃음이 나올뿐이다. 어머니는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전대협동우회가 구국전위의 하부조직이라는 도표를 보면서, 또 한번 웃었다고 하신다. 어느 동맹국보다 동족이 우선이라고 말한 사람이 벌이는 정치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으신다. 김종식씨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할 수 있는 한 민가협 일을 돕고 열심히 활동할 작정이라는 어머니는 이미 자식보다 더 강하고 더 철저하게 체화된 운동가가 된 것이다. 이미 학생들에게 아들보다 더 유명한 어머니로 통한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감옥생활하는 아들이 더 훌륭하다며 손을 내저으신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저 엄마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며 자식으로 인해 세상을 제대로 깨우친 것이 오히려 고마울뿐이라고 하신다.

원불교를 믿으신다는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종식이가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나, 그저 그것이 기특할뿐이다”고 칭찬하셨다. 아들 면회를 가셔도 “큰 거목은 굵은 비를 많이 맞아야 한다. 너가 이처럼 고생을 하는 것이 네 인생에서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너희들을 이

렇게 가두어 놓고 있겠니?”라고 격려해주신다는 어머니. 면회를 자주 가는 것보다 민가협 활동 등 밖에서 해줄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어머니는 무척이나 강해 보인다. 하지만 것처럼 밝고 강한 어머니의 비밀일기에는 “열흘이 하루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종식이가 보고싶다.”라는 간절한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매일매일 아들에 대한 감정과 활동을 몇자씩 적어나가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수첩이 쌓여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그만큼 살맛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조국을 위해서 청춘을 값지게 보낸 수많은 젊은이의 어머니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힘찬 투쟁으로 바꾸어내는 어머니의 환한 웃음속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 민가협 목요집회에 함께하신 안옥희 어머니.
“종식아, 네가 이처럼 고생하는 것이 인생에서 손해되는 일은 아니다.”

집들이 술한잔을 기다립니다

이 회 두(31. 학원강사)

계 속되는 뜨거운 날씨속에 한줄기 비라도 더 없이 그리운 마음으로 기다리던 산에 가는 날. 지금껏 가본 산행 중에 내딛에는 오늘 이 가져가는 것들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전에는 맨손으로 가서 김밥 등을 달랑 사들고 다른 사람 가방에 넣어 메고 다니기 일쑤였지요. 이것저것 챙겨넣은 묵직한 가방을 멘 오늘은 제법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가방의 무게는 산행거리와 강도에 비례하거든요.

꽃노래 흥얼거리며 도착한 19번 종점.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다니. 내가 잘못 알았나. 표파는 곳에 가보면 되겠지. 어라 여기도 아무도 없네. 다시 내려가 보자. 아, 저기들 모여 있군. 근데 표정들이 왜 저럴까? 사람수도 너무 적네.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며 인사를 하러간 나는 순간 황당해졌습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불이 났다는 믿기 싫은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얼른 가 봐야겠다는 맘뿐이었죠. 앞뒤 재볼 겨를 없이 덤비는 제 등뒤로 누군가 그럼 산행은 어떤다냐 하대요. 누구인들 어려움 겪으신 곳으로 달려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산행도 취소할 수 없는 행사라는 생각도 들고 김영옥 선생님께서 새벽에 난 불이라 급한 일들은 정태를 비롯한 회원들 몇이 치우고 있으니 패를 나누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더러는 입담이 세니(?) 산행패를 권하셨구요. 좀 서운하긴 하면서도 저는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낙성대행을 고집하지 않은 데에는 선생님의 말씀

말고도 후원회와 함께하는 첫 산행이었던 겨울 북한산행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혼자가기 멋적어서 친구부부를 위어서 함께 했었죠. 그나마 그때는 다른 패들의 모임이 없어서 쉽게 후원회원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같이 봄비는 날은 찾지도 못했을거예요.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산행은 바람몰이(?) 이세균 선생님을 길라잡이로 하여 계곡길로 접어들었죠. 한동안 가물었음에도 계곡 곳곳에는 물이 조금씩 고여 있었고 그런 자리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앉아 그들과 계곡물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람 한점없이 짝짝한 날씨라 더위에 지칠 법도 하건만 이 선생님을 비롯해 모두들 뒤흔들고 마당바위까지 올랐습니다. '낮선 얼굴들이 대부분이지만 산에서는 누구나 친근하게 느껴진다. 숨을 몰아 쉬어 가면서도 격의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리섬을 하면서도 서로 성의를 아끼지 않는다. 땀을 흘리고 힘은 들지만 모두 한걸음씩 가까워지는 기분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단합대회를 주로 산행으로 치루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 각자 준비해온 맛있는 도시락을 열심히 먹고 후원회 신입회원 여든여덟(이 사람들 꼭 기억해 두세요.)모임의 멋드러진 소리한편을 듣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처음 나온 이들이 대부분인 조촐한 산행이었지만, 앞으로 후원회 일에 열심히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이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지요. 산행을 마친 뒤에는 회원 몇 사람들이 낙성대로 향했습니다. 전철 속에서 이선

생님이 “불에 눈이 있간다” 하시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안되는 사람은 정말 안되는 것일까? 왜 자꾸 불운이 겹치는 걸까?’ 맥없는 생각을 하며 도착한 낙성대 집은 2층 내부가 전소된 모습이었고 마당에는 쓸어낸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며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먼저 와서 애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갑자기 몇년전 읽었던 책 제목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맘 홀리면서도 반겨주시던 선생님들과 회원들의 모습에서 무언가 표현하기

힘든 감동도 느껴졌구요. 뒷일이 어떻게 수습되어 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철 속에서 했던 자조적인 생각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최남규 선생님께서 등에 화상을 입으셨는데 빨리 나오시기를 바라며, 낙성대 만남의 집이 우리의 맘과 노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집들이 술한잔 할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만 앞뒤 없는 글을 마치렵니다. 아, 참. 책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 그 책제목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입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 회원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립니다 -

7월 17일 새벽 2시 낙성대 만남의 집 2층에서 원인모를 불이 나서 방 2개 거실 계단 목욕실이 불타고 이종환 선생님의 모든 물건과 최남규 선생님의 방 일부 물건이 타버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가 어두웠던 선생님들은 타는 냄새로 잠이 깨셨으나 불길의 세차게 번져 옷가지 하나 건지지 못하고 이종 최남규 이종환 선생님께서는 가벼운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이웃집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와서 아래층까지 번지기 전에 불은 꺼졌으나 갑자기 당한 재난과 화상, 불탄 잔해 등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후원회 회원들은 이날 7월 산행을 일부회원만으로 하는 한편 다른 회원은 화재현장에 와서 선생님들께 위로를 드리고 잔해정리와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현장에서 긴급히 열어 화인규명과 집수리 여부등 전반적인 만남의 집 관리를 협의하였습니다.

그후 진행결과와 화인은 누전 또는 전기선 합선이라는 소방담당자의 판단을 들었을 뿐이며 다른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기술자의 현장점검, 불탄 2층의 골조와 벽돌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후원회 주관으로 나래건설(대표 송경용 신부님) 감리하에 7월 23일부터 수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8월 9일 오늘까지 양심수후원회원과 성공회 청년회와 서울대 학생 등 자원봉사자 73명이 일손이 되어주셔서 8월 10일까지 1차공사 일마침을 목표로 40도 불볕 더위를 이기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낙성대 만남의 집은 회원 여러분의 정성으로 마련하여 오랜 옥고를 치루고 나오신 오갈데 없는 선생님들이 머무실 집입니다.

화재 자체가 예고된 일이 아니듯이 집수리할 예산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래층 도배, 보일러도 하지 않고 2층 수리만 해도 1차 공사비로 19,000,000 건적이었습니다. 회원들의 노력 봉사로 15,000,000에 이를 것 같습니다. 통일조국, 민족적 염원이 이루어지고 그리운 고향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고 마음 편히 머무실 '만남의 집' 수리에 회원 여러분의 조건과 능력에 맞게 힘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대 청춘을 거리에서 보낸 내 아들을...

박 성 래(민가협 회원, 조혁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국전위 사건 발표중 전대협동우회 결성을 주도, 지도했다고 보도된 조혁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혁이는 86년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계속 수배를 받아오면서 거의 9년 동안 가족들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자유로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이름이 갑자기 신문지상에 오르 내리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몰라 걱정 떨어질 날이 없었던 아들의 이름이 국가보안법 사건발표와 함께 굵은 철자로 적혀있는 것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89년 12월 성탄절 사면자 명단이 발표될 때 수배해제 명단에 우리 혁이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일이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무슨일인지 사실상 수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미청년회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은 이미 형을 살고 나왔고 우리 혁이도 그만큼의 고통을 겪었는데 자유로와질 수 없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년을 생이별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난 93년 겨울 법무부에서 발표한 공식 수배자 명단에 혁이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8년동안 아들을 못 보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려 이제는 눈물이 말라버렸는줄 알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난 후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겠구나. 나이가 들었으니 참한 색시 구해서 결혼도 시켜 10년간 쫓겨 다니느라 빼앗긴 젊음

인생을 모조리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구국전위 사건은 지난 6월초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이번의 사건발표는 세번째인데 먼저 2번의 발표에서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던 혁이의 이름이 새삼스럽게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관련자들의 조사과정에서도 혁이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아이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배중이라 에미도 만나지 못했던 내 아들이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전대협 간부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으며 동우회 결성을 지도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대협동우회에서도 우리 혁이는 동우회 회원도 아니고 동우회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86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9년 가까이 수배생활을 하면서 마음과 몸이 다 녹아버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제야 좀 남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왜 근거도 없이 혁이의 이름을 들먹여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제 혁이 나이가 30입니다. 20대 청춘을 거리에서 다 보내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있어야 할 나이인데, 언제쯤이나 우리 혁이가 이 에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가 이루어져 가슴에 맺히 한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민가협 목요집회에 박성래 님이 나오셔서 발표한 글의 일부입니다.

자라는 세대의 모범이 될 고통

김 철 (대구교도소 수감중)

선생님,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서 제가 울고 울면서 재판을 받은지도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지난 5년을 생각하면 촌각의 흐름이 너무도 빠르게 사무칩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지금도 꿈속의 악몽이 아닌가하고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 5년을 민가협은 저와 슬픔을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주교도소에서 이곳으로 이감을 온 5일만에 선생님께서 성금으로 주신 봉투가 도착되었습니다. 이것이 감히 부모형제의 정만 못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저 자신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토록 어려운 이 시대의 고난 <양심수들과 같이 하시는 고통>이 이 지구상에 영원히 남아서 자라는 세대의 모범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무더운 더위를 잘 참지 못하는 체질로서 해마다 여름에는 큰 고통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민가협가족(어머니들)께서는 감옥에 있는 저희들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이 무더위에 일일 찻집을 한다. 일일호프를 한다 하시면서 비지땀을 흘리시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보면서 힘들다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2년 정도면 형기가 만료됩니다.

다시 세상에로 출소되면 지나간 세월같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찌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한방의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면 민중의 고통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옳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기를 희망하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이 한 몸 다바쳐 몸놀림 하겠습니다.

선생님, 6월 10일자 신문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억울한 누명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밝혀져야만 합니다. 이 땅은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부정들을 고치고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들은 부정한 역사의 죄인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적마다 민가협의 눈물과 땀이 한결 우뚝 솟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나라에도 이토록 아름다운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자랑입니다.(웬만하면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남의 인권은 무시하는 세상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남의 인생은 마구 짓이기는 세상에서)

난필을 이만 놓습니다. 민가협 온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건강 건강 건강하십시오.

1994. 7. 김철 배상

김철 선생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받고 지금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6월 10일 신문에는 구속, 석방 양심수들이 고문 수사관을 상대로 고문행위에 대한 집단 고소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없이 서있는 커다란 산

김 현 희(번역가)

스스로는 그저 “배운 도둑질”이라고 하지만, 전문번역가라는 간판을 달고 원고지를 긁어 벌이를 하는 날품팔이 서생입니다. 주로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집에 손님이 와서 날보고 “밥상에서 밥을 버네?” 하시더군요. 내방에서는 작은 앉은뱅이 책상을 펴놓고 일하고 마루에 나가서는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 먹는 식탁에서 일하기 때문이지요.

종이와 연필을 끼고 살면서도 누군가가 자투리 글이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오면 겁부터 납니다. 소위 “프로”가 아니라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남의 글 옮기는 것과 내 글 쓰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겁니다.

제가 후원회 회원이 된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민가협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후원회를 알게 된 계기는 92년 7월,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 및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농성 때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후원회에 처음 전화를 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달마다 진행되고 있는 산행에 합류하지 못하는 섭섭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몇년전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로는 무릎이 시원칠 않아 산에 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에 감옥에 계시는 장기수 선생님들과 회원들간에 편지보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걸 알게 되어 비로소 창신동 사무실을 몸소(?)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달치 후원회 소식지에 실렸던 대전교도소의 한장호 선생님께 그때부터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지내온 일상속에서 느끼는 사소한 것들, 그리고 보았던 연극, 읽었던 책 등에 대해 종알종알 써보내지요.

아직 답장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연로하신 까닭이라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건강하게 지내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궁금함에 욕심이 생겨 편지 말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선생님께선 거기 그렇게 계신지요...”라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선 거기 말없이 서 있는 커다란 산입니다. 제가 겸허와 인내를 배워야 할 큰산이지요. 끝끝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일러주시는 커다란 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온 세월만큼을 그곳에 갇혀지내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처연해지기만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단 한명의 양심수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누구도 결코 자유로울수 없는 것입니다.

환한 웃음으로 맞이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지요.

회원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 7. 1 • 전국연합 주최 공안정국 규탄대회가 탑골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집회후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했습니다.
- 7. 2 • 남과북이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14개항 실무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 공안당국이 이른바 '구국전위' 사건 수사발표를 하며 23명을 구속하고, 8명을 수배했습니다.
- 7. 4 • 후원회 지도위원이신 김승훈 신부님께서 벽돌쌓기 사업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 7. 5 •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가 '보도지침' 사건 관련 세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 7. 7 • 유신에서 6공에 이르기까지 공안기관에 끌려가 고문당한 양심수와 그 가족들 66명이 서울지검에 고문 담당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형법상의 불법체포감금(125조), 가혹행위(125조) 피의사실공표(126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님(민의협)의 모친상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함주명씨 등 조작간첩 사건 사례 발표)
- 7. 9 • 김일성 주석 사망 보도가 있었습니다.
- 7. 13 • 후원회 7월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루주막 중간결산 보고와 지원문제에 대해 토론하였고,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도 의논했습니다.
• 경찰청이 서총련 의장 이종욱 한양대 총학생회장 등 학생 55명을 강제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7. 14 • 소식지 33호를 국내외 회원분들께 발송했습니다. 이회두 회원께서 바쁘신데도 짬을 내어 도와주셨습니다.
• 민가협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남총련, 전기협 사건 가족분들의 사례발표)
이날은 남총련 구속 학부모 30여명이 광주에서 올라와 각 구치소, 교도소를 면회하고, 목요집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 7. 15 • 경찰청이 서총련 조통위 위원장 김종백 (시립대) 학생 등 서총련 간부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 범청학련 결성식에서 '인공기' 계양 혐의로 구속된 전 중앙대 총학생회장 김영하 학생에게 2년을 선고했습니다.
- 7. 16 • 민가협 민주가족의 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 7. 17 • 새벽 2시에 낙성대 '만남의 집'에 원인모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2층이 모두 타고, 최남규, 이종환 선생님이 가벼운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후원회는 7월 산행을 일부 회원들 중심으로만 진행을 하고, 많은 회원이 화재 현장으로 가 화재 잔해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긴급 운영위를 열어 화인규명 등 사후대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7. 18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성금 5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7. 18** • 서강대 박홍 총장이 '한총련 배후에 사노맹 - 사로청 - 김정일이 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을 했고 언론은 이에 발맞춰 대서특필했으며 검찰은 '주사파 척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7. 19** • 몽양 여운형 선생의 47주기 추도모임이 있었습니다.
• 민가협 회원들이 서강대로 박홍 총장을 찾아가 항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 수리와 관련해 설비, 전기 점검을 했습니다.
- 7. 20** • 낙성대 화재 관련, 소방서에서 화인이 누전으로 추정된다고 구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수리할 부분을 최종 점검한 결과 2층 전기, 1,2층 보일러 설비, 2층 문짝, 내장, 계단, 외벽 닦기, 천정 나무판 등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 7. 21** • 민가협 회원들, 서강대 박홍 총장 항의방문을 다녀오셨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학생운동 탄압 실상)
• 광주, 전남 등 각계인사 72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신공안정국을 중지할 것과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주장했습니다.
- 7. 22** • 후원회 기획모임이 있었습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 수리에 일손 돕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 제5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7. 23** • 후원회원 음식물 감시물 팀이 서산, 태안, 안면도 일대 환경 기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 낙성대 집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청협, 성공회, 후원회원 등 6명이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타다남은 목재와 문틀 등 뜯기)
- 7. 24** • 낙성대 집수리 : 후원회원 등 10명이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목욕실 타일 닦기, 마당 쓰레기 치움, 계단 나무 뜯기)
- 7. 25** • 「후원회 소식지」 34호 편집모임이 있었습니다.
•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가 신공안정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낙성대 집수리 : 전기공사, 스키폴, 목재, 철선 등 자재 반입
- 7. 26** • 조창손 선생님께서 고열로 사당의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7. 27** • 낙성대 집수리 : 후원회원과 서울대생 등 13명이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자재운반, 물탱크 등 자재 반입)
- 7. 28** • 장기수 10명(각 2만원씩)과 시국 양심수 101명(각 1만원씩)에게 영치금을 발송했습니다.
• 부산민가협 양심수후원회(준)에 벽돌쌓기 모은돈 2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 목포 민주청년회 주최 '통일학교'에 회장님이 양심수에 대한 강연을 다녀오셨습니다.

7.30

- 계속 입원중이신 조창순 선생님께서 열이 조금 내리고, 처음으로 죽을 드셨습니다.
- 천주교 광주교구 정평위와 전북지역 기독교인 75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공안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7.31

- 황영태 선생님 사모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낙성대 집수리 : 광인열전, 희망찾기, 임시용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백들쌍기 최종 결산보고 및 지원내역

수 입

찬조금	880,000원
표판매 및 당일 현장 판매 수입	15,311,050원
총수입	16,191,050원

지 출

장소사용비	1,300,000원
인건비 (수고회원 도서상품권, 회원교통비, 간사 수고비 등)	380,000원
티켓 인쇄비	90,000원
맥주비	1,129,450원
안주 및 음식물 재료, 비품, 기타	1,650,380원
총지출	4,549,830원

16,191,050원(수입) - 4,549,830원(지출) = 11,641,220원 (순수익)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뛰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내역

광주 사랑의 집 4,000,000 부산 만남의 집 2,000,000
대구 만남의 집 2,000,000

• 부산 대구 만남의 집에 3,000,000씩 지원하기로 했던 처음 계획은 뜻하지 않은 서울 낙성대 만남의집 화재에 따른 수리비용 때문에 2,000,000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시위관련 구속자

이종욱(서충련 의장) 설충석(한충련 대변인)

정재관(고려대 총학생회장)

박선후(서충련 남부지구 조통위)

최종민(서충련 동부지구 의장)

조두현(서충련 사무처장)

조흥련(서충련 정책위원장)

김종백(서충련 조통위원장)

김병목(건국대) 김남곤(연세대)

정태조 김민철(고려대)

- 이상 7월 13일 중앙대 안산배움터에서 무더기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박재홍 이석준(고려대)

- 서충련 간부 대량 구속 항의시위

강희남(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종린 전창일(부의장)

강순정(서울연합 부의장) 안희만(범민련 간사)

- 김주석 조문위해 판문점 가려다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김진숙 방성진(한양대 안산 배움터)

최인규(시립대 부총) - 김주석 조문 현수막

신법타 이지범(평불협)

- 한국전쟁 관련 북한군해를 회보에 실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김재구 홍현수 조수란 황수영(전남대)

전민호(조선대) 양남호(호남대)

윤미라(순천공전)

- 남충련 투신국, 7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김양무 오병윤

- 범민련 광주전남지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허성만(대경총련 의장)

김영성(대경총련 조통위원장) 최한식(경북대)

- 시위관련

김동(부경총련 조통위원장)

성현제 박재홍(민정련 마창지부)

권도익 홍성주(민정련 청주지부)

-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이상철 차현민 강진구 윤형금 박현용 안병일

이정화 안호섭 김기현 김영광

- 모두 고려대생으로 무더기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중

박진섭(한국외대졸) - 사노맹 영남위원장

이남수 조승희(외국어대)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장용재 김남일 - 순천대 학원침탈 시 연행 구속

이진홍 - 원광대 총학생회장

이건호(경산대) - 대경총련 조통위장

최한식(경북대) - 시위관련

노조 파업 관련

남진우 이상록(전기협) - 노조파업

조길표(위원장) 김병철(쟁의부장)

김주익(사무국장) 김순섭(조직부장)

윤국성(총무부장) 김경천(기획부장)

박성호(조사통계부장) 안현달(쟁의차장)

조충렬(대의원)

-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강한규(위원장) 이강근(수석부위원장)

이영호(역1지부) 김철웅 이민현(사무국장)

한준우(조사부장) 유승호(역2지부)

박태영(교선부장) 류강걸(쟁의부장)

양천복(정비부장)

- 부산지하철 파업

김삼철(교선부장) 신용길(조직부장)

도준석(기획부장) 박달영(총무부장)

- 부산기관차협의회 파업

조근한(백병원) - 노조파업

방영갑 홍현수 이상봉 제갈기 윤성태

- 상업증권 노조 파업

문상태 - 상신 브레이크

이기범 노수진 이흥민 박대종 설동윤 이석행

이광균 조성수 정성무 한생남 모한중 김옥현

김영만 강경원 전 구 민영선 하태정 조삼수

김승철 최중거

- 금호타이어 파업

희년에배와 양심수를 위한 서예전 - 성원과 축하를 드립니다!!

머나먼 미국땅에서 우리 후원회와 함께 한국의 양심수를 후원해 주시는 미국수도장로교회(목사 조명철)에서는 조국분단 50년, 95년에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이 이룩되기를 소망하며 희년에배와 양심수를 위한 서예전을 연답니다.

이 행사는 수도노회 한인교회 연합회 주최로 8월 13, 14일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후원회원 모두의 마음으로 바랍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곽윤희(송파구 가락본동)	김미령(중구 장충동)	김보영(서초구 방배본동)
김선영(안양시 평촌동)	김성근(동대문구 휘경2동)	김원욱(의정부시 의정부3동)
김현애(마포구 서교동)	유선숙(강서구 화곡4동)	정해열(은평구 응암동)
정형근(서초구 방배동)		

1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94 여름수련회!

지난해 여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신났던 작은올림픽의 순간들,
대성리를 울리던 함성 ... 1년이나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회원 여러분,
처음이라 쑥스럽고 어려울 것 같은 마음에 갈까 말까 하는 회원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 무더웠던 여름은 역사속으로 남겨두고 가을을 향해 떠나봅시다.
'우아한' 혼자도 괜찮고 '거추장스런' 둘도 좋고 가족동반은 더욱 환영합니다.

우리 양심수후원회의 단결과 어울림의 극치,
여름수련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언제가요?	1994년 9월 3일 ~ 4일(1박 2일)
어디로요?	대성리 남사당
어서 모여요?	9월 3일 늦은 4시, 청량리역 앞 인구탑에서(4시40분발 기차)
뭐 갖고 올까요?	회비 13,000원은 필수고요, 세면도구, 필기도구, 긴팔옷, 손전등, 모자, 그리고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 기대에 찬 마음!

그외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765-5282/ 763-2606

◆ 양심수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온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의 분단의 상처를 가슴 한켠에 묻어 둔 채 350여명의 양심수들은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민정부'라는 유행어도 양심수들에게는 감옥 밖에서나 존재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들 양심수들 중에는 적개는 10년, 심지어는 43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7명이나 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 때문이라는 반성을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의 회원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 않고, 햇빛 한 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에게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 사랑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② 3,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③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④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민 주 화 실 천
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763-2606 (F) 745-5604
110-542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